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FEBRUARY 2025 Vol.239

CEO REPORT

MONTHLY CEO

산업용 밸브 제조기업
한국케이밸브(주) 안성민 대표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FEBRUARY 2025 Vol.239



CEO Report 웹진

발행일 2025년 2월 18일 통권 239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서경란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461

기획 IBK경제연구소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SPECIAL REPORT

- 02 **THEME**
CES 2025
- 04 **SPECIAL ①**
일상에 들어온 AI
- 08 **SPECIAL ②**
온디바이스AI, 드론...
CES서 빛난 K-벤처
- 12 **TABLE TALK**
AX 시대, 中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인력관리-제조 등에 AI 선택적 도입을”



ECONOMY

- 18 **MONTHLY CEO**
산업용 밸브 제조기업
한국케이밸브(주) 안성민 대표
- 24 **START-UP**
CES 2025서 세계가 주목한
창공 10대 기업
- 28 **MARKETING**
숏폼으로 ‘숏핑’해요
- 32 **TAX**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현명한 가업 승계 대책은?
- 34 **IBK EXPLORING**
IBK기업은행-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 36 **GLOBAL ECONOMY**
지금 세계는:
- 38 **INDUSTRY TREND**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CULTURE

- 40 **LAW**
직원의 무단결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42 **MOVIE**
디지털 기술이 효율성 높여도
미래를 여는 건 인간적 리더십
- 44 **ESSAY**
웰빙의 행복론... 쇼펜하우어의 건강법
- 46 **WORK OUT**
풍성한 명절 후, 뱃살이 걱정된다면



CES 2025

02 THEME
CES 2025

04 SPECIAL ①
일상에 들어온 AI

08 SPECIAL ②
온디바이스AI, 드론...
CES서 빛난 K-벤처

12 TABLE TALK
AX 시대, 中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인력관리-제조 등에 AI 선택적 도입을”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2025가 현지 시간 기준,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매해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다. CES는 세계의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는 전자제품, 스마트홈, 자동차 기술, 로봇공학, 인공지능, 5G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전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CES 2025에는 모든 산업 영역이 AI로 뛰어든다는 의미의 ‘다이브 인(Dive In)’의 슬로건 아래 160개국 4,800개 기업이 참가했다.

글. 이은영

일상에 들어온 AI

CES 2025에서 '일상에 녹아든 AI'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실의 일부임이 강조됐다. 우리의 일상, 기업의 제품이 방법이나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AI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 AI의 트렌드 변화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살핀다.

Profile. 이은영
- 삼일PwC 경영연구원 상무

비즈니스 기회 탐색의 무대, 산업 트렌드의 출발점

매년 연초가 되면 전 세계 비즈니스 업계가 주목하는 행사가 있다. 바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다. 1967년부터 시작된 CES는 전 세계 기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모여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공신력 있는 자리다. 2025년에는 전 세계 4,8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근에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기술 제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기술 트렌드를 논했었던 만큼 올해 집중해야 할 기술 영역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해 보는 필수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CES가 시장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일례로 1997년 CES에서 아메리칸온라인(AOL)이 초기 인터넷 기술을 선보였고, 이는 통신 기업들의 인터넷 서비스 확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터넷 기반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됐다. CES가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도 1993년 CES에서 애플이 공개한 애플 뉴턴으로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됐고, 2013년 폴크스바겐과 아우디가 자율주행 시제품 차량을 공개하면서 미래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자율주행 상용화가 현실화됐다. 이처럼 그해에 CES에서 주목받는 기술이 곧 시장 트렌드로 직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기업에 CES는 반드시 챙겨봐야 할 행사다. 특히 올해 CES 2025는 참가 기업 수가 2024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4,800여 개였으며 약 14만 명이 다녀갔다. 무엇보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 소재 첨단 스타트업 전시관이 개장했으며 CES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 기업의 위상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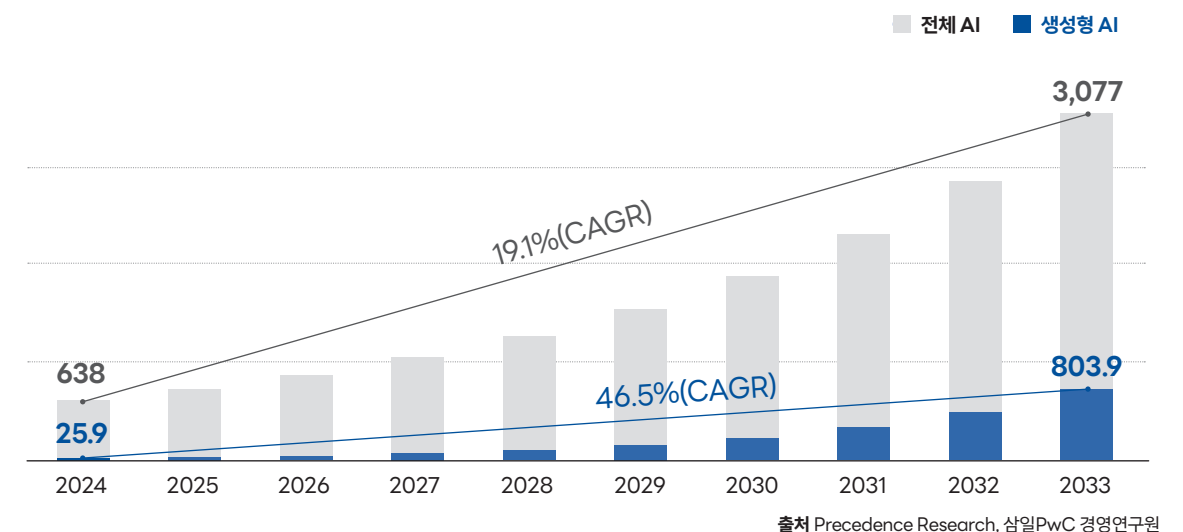
AI,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님을 증명하다

이번 CES 2025가 주목한 키워드와 기술은 무엇인가? 핵심 키워드는 '몰입(Dive in)'으로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메시지 아래 CES가 제시한 올해의 기술은 AI,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로봇, 지속가능성 등이 있었지만 단연 그 중심에는 'AI'가 있었다. 사실 AI가 CES에서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CES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CEO가 AI 기술 구상과 시장 진출을 선포하고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알렉사(Alexa)와 같은 음성인식 기반의 AI 플랫폼을 대거 선보이면서 AI 강풍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AI는 여전히 기술 개발 측면에서 갈 길이 먼 영역이라 AI 자체의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가능성만 다뤄져 왔다. 그러다 2022년 생성형 AI인 챗GPT가 등장하면서 AI 상용화 시계는 더욱 빨라졌다. 이에 따라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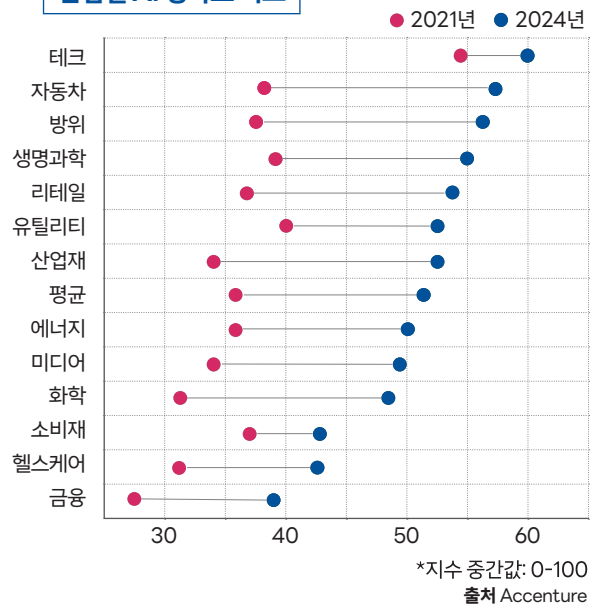
CES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4년 CES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혁신상 평가 카테고리에 처음으로 AI 부문이 신설된 것이다. CES는 시장성 높은 산업군으로 30여 개로 카테고리화한 혁신 제품들을 기술성과 심미성으로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2024년부터는 AI가 이러한 대표 산업군으로 공식 분류되면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린 것이다. 이 흐름 가운데 2025년 CES에서는 '일상에 녹아든 AI' 기술이 대거 등장했다. 2024년까지는 여전히 AI 기술 자체에 대한 개발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25년 행사에서는 AI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실 속에 Dive-in(몰입)한 기술이 됐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기업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번 CES에 참여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일상 속의 AI를 내걸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라는 타이틀 아래 자사의 가전기기 전반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산업별 AI 성숙도 비교



에 AI 기술을 통합해 실사용자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홈AI를 선보였다. 그중에서 TV에 탑재된 AI가 사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전AI’와 냉장고 속 식재료를 AI가 자동 인식해 레시피를 제시하는 ‘AI 비전 인사이트’ 등의 일상 속 AI 기술이 CES 현장에서 각광받았다. LG전자도 ‘AI가 사용자를 더 배려하고 공감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AI를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으로 재정의하고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을 주제로 홈AI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집 안의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AI를 적용해 사용자의 말과 행동, 주변 환경을 감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제시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심박수, 호흡, 기침 등을 분석해 온수를 마시도록 제안하거나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다. HP는 클릭 한 번으로 발표 자료 준비와 개인 맞춤형 이메일 작성이 가능한 AI PC

를 선보였으며, 파나소닉은 가족 건강을 챙겨주는 AI 기반의 실생활 로봇을 소개했다. 더불어 이번 CES에 출동한 스타트업들이 들고 나온 기술도 대부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AI였다. CES 혁신상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에 수여하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기술만 봐도 AI가 대세임이 분명했다. CES 2025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전 세계 기업은 총 34개로 그중 21개 스타트업 기술 대다수가 AI 자체이거나 AI 적용 기술이었다. 일례로 한국 기업인 슈프리마AI는 ATM 등 독립형 금융 기기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는 온디바이스(내장) AI 모듈을 공개했고, 시에라베이스는 드론에 AI 기반 손상 탐지 및 분석 기능을 결합해 정확한 시설 점검이 가능한 기술을 제시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이 이번 CES에서는 기술 고도화로 일상으로 들어온 AI가 중심을 이룬 가운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AI 잠재력 또한 매우 막대하다. 2033년까지 글로벌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CAGR)은 19.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생성형 AI는 46.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AI가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의 성숙도로 디바이스 등에 쉽게 탑재 가능(On-Device AI)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AI 시장 변화 등에 힘입어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 AI의 산업별 성숙도는 2024년에 매우 높아졌는데 그중 자동차(모빌리티), 방위, 생명과학 분야의 AI 기술 적용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현실 속에 들어온 AI로 시장 전망성은 밝지만 이번 CES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AI Agent로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AI Agent란 인간 개입

기업별 AI Agent 서비스

기업명	서비스명	특징	발표/출시일
마이크로소프트	Magentic-One	총괄 AI Agent가 다수의 보조 Agent를 지휘해 복잡한 작업 수행	2024년 11월 발표
	Copilot Studio	MS 365 Copilot과 연동해 AI Agent 생성 - 복잡한 업무 처리 가능한 자율 Agent 직접 구축 및 프롬프트 입력 없이 업무 효율적으로 진행 - Agentlibrary 활용해 반복적인 작업 수행하는 Agent 구축	2024년 11월 출시
오픈AI	Operator	웹 브라우저에서 인간 대신 자율적으로 작업 수행	2024년 11월 발표, 2025년 1월 출시
	Swarm	자율 AI Agent 간 협업 및 조정	2024년 11월 발표
구글	AI Agent Space	AI Agent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용 AI Agent 생태계 프로그램 -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AI Agent Space’ 카테고리 추가	2024년 11월 출시
엔트로픽	Computer Use	AI가 사람처럼 컴퓨터를 자율적으로 조작	2024년 10월 발표

출처 삼일PwC 경영연구원

없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데이터 분석 및 학습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시스템 기반의 기술이다. 사용자의 명확한 명령과 데이터 입력 없이 자동적으로 작업 수행이 가능해 ‘지능형 디지털 기술’로 불린다. 이러한 AI Agent의 가능성을 이번 CES에서 먼저 선포한 사람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다. 기조연설로 CES 2025 문을 연 젠슨 황 CEO는 “미래에는 AI Agent가 본질적으로 디지털 인력이 돼 직원과 협력해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임무에 대해 추론하고, 이를 작업으로 나누고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고품질의 응답을 생성한다”라고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구글, MS, 삼성SDS는 자사가 개발 중이거나 완료한 AI Agent 기술을 경쟁적으로 선보여 주목받기도 했다. 실제로 2025년부터 AI Agent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CES 2025에서는 일상에 녹아든 AI가 중심을 이뤘으며

일상의 편익에 깊게 개입할 수 있는 AI Agent와 같은 기술들이 제시됐다. AI 기술은 현실이고, 비즈니스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술이 되고 있다. AI가 실질적으로도 기업에 적용될 때 노동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이 큰 폭으로 제고된다는 여러 리서치 결과가 나오고 있다. CES 2025 현장에서 다룬 기술이 AI로 인해 주목받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그 숨겨진 기술들이 AI로 인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향후 몇 년 안에 AI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기기나 제품 등에 AI 탑재가 필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하고 현실적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AI Agent, 물리적(Physical) AI 등 기업이 숙지해야 할 기술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기술 트렌드를 끊임없이 파악해 일상의 편익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AI를 적용해 나가야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온디바이스AI, 드론... CES서 빛난 K-벤처

CES 2025에서 한국 기업의 활약은 빛이 났다.

K-벤처·스타트업이 133개의 CES 2025 혁신상을 차지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와 드론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AI'가 주제였던 CES 2025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활약을 살핀다.

Profile. 유성민
- IT칼럼니스트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R&D 상생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는 매년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콘퍼런스 행사다. 올해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CES는 1967년, 소비자에게 가전을 전시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58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콘퍼런스로 발전했다. 가전 전시회에서 최신 ICT 동향을 교류하는 행사로 바뀐 셈이다. CES 2025 참관객 수는 14만 명이 넘고 전시 기업은 4,800여 개다. CES 2025 콘퍼런스 주제도 강렬하다.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연결(Connect)·해결(Solve)·발견(Discover)·몰입(Dive-in)”이었다. 이는 ‘서로의 기술을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

CES 2025에 참여한 한국 기업의 성과

기업 및 플랫폼	참여 기업 수	특징
삼성전자 C랩	15개	-CES 최고혁신상 등 12건 수상 -누적 912개사, 12조9,000억 원 투자
LG전자 노바(북미이노베이션센터)	6개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협력 조직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10개	-혁신상 4건 수상 -투자 포트폴리오 110여 개사 중 80% 글로벌 진출
카카오벤처스	7개	-혁신상 3건 수상

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견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몰입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CES 2025에서 소개된 최신 ICT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삼성전자가 참여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부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삼성전자는 3,368㎡(약 1,019평) 부스에서 가정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인 홈 AI를 선보였다. 가전 배치도를 추천하는 맵뷰(Map-View)를 비롯해 개인 맞춤형으로 동작하는 여러 가전 기기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총 29개 혁신상을 받았고 그중 최고혁신상 4개를 받았다. 특히 눈에 띈 제품은 ‘갤럭시 버즈 3 프로’였다. AI 기반으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공감지능’이라는 핵심어를 내세운 LG전자는 LED 사이니지 700여 장을 붙여 만든 화려한 조형물로 참관객의 시선을 끌었다. LG전자 가정용 플랫폼 ‘LG 씽큐 온(ThinQ ON)’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센서로 감지하여 가전 기기를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집 안 환경을 만들어 준다. LG전자는 24개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중 최고혁신상 3개를 받았다. 혁신상을 수상한 ‘이동형 AI홈 허브(프로젝트명 Q9)’가 돋보였는데 Q9은 집사 로봇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가정 내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AI 전용 프로세서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물리적 AI(Physical AI)’ 시대를 강조하며 대화형

AI 시대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차까지 확장된 미래를 제시했다. 엔비디아는 이를 돕기 위해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가상 세계에서 쉽게 학습시킬 수 있는 코스모스(Cosmos) 플랫폼을 선보였다. 한편 이번 CES 2025에서 LG전자 노바, 네이버 D2스타트업 팩토리 등 대기업의 연구 지원을 받아 전시관을 꾸린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최소 37개사에 이른다.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R&D 상생 전략을 들고나온 것이다.

중국과 미국을 이긴 한국

불과 4년 전만 해도 CES 참관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면 필자를 중국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CES에서 중국의 위상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CES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CES 2025에 참가한 국내 기업 수는 1,031개사로 전년 대비 33.5% 증가했다. 이는 미국(1,509개사), 중국(1,339개사)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우수 전시 기업이 받는 혁신상 역시 주목할 만하다.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 수는 458개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이 210개(46%)를 수상하며 가장 많은 혁신상을 수상한 나라에 등극했다. 이는 전년 134개에서 1.5배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한 미국(68개, 15%)과 중국(4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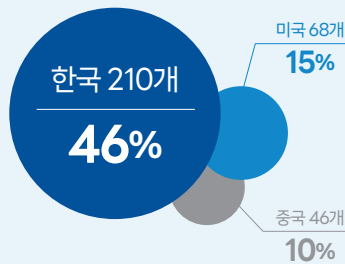
한국·미국·중국의 CES 2025 참가 기업 수

한국
1,031개사
*전년 대비 33.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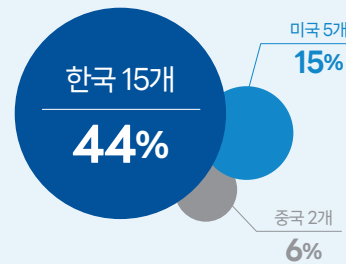
미국
1,509개사

중국
1,339개사

혁신상 수상 (전체 제품 458개 대상)



최고혁신상 수상 (전체 제품 34개 대상)



10%)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고혁신상의 경우 전체 34개 중 15개(44%)가 한국 제품에 돌아갔다. 이 또한 미국(5개, 15%)과 중국(2개, 6%)보다 많은 수치다. CES 2025에서 한국이 이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K-벤처·스타트업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K-벤처·스타트업이 133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한국이 수상한 전체 혁신상에서 60%를 차지한다. K-벤처·스타트업의 활약은 최고혁신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10개사가 최고혁신상 15개를 수상했는데 그중 K-벤처·스타트업 5개사가 5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그럼 K-벤처·스타트업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을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온디바이스 AI와 드론 분야다. 슈프리마AI, 고스트패스, 포스콤이 온디바이스 AI 유형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고, 시에라베이스와 니어스랩이 드론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자.

온디바이스 AI에서 활약한 국내 기업들

AI의 핵심은 적은 자원을 쓰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AI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AI 구동을 경량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최대한 효율적으로 컴퓨팅 성능을 높여 정확도를 올리는 하드웨어 기술 개발로 진행된다. 온디바이스 AI는 이러한 기술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 AI 구동의 경량성과 스마트폰의 제한적인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중앙 서버에서 구동한 만큼 AI 정확도는 높지 않다. 이에 온디바이스 AI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지 않은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가령 해당 사람이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것보다 해당 사람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에서 적은 정확도를 요구한다. 음성 AI를 예로 들겠다. AI 실행어는 사람이 기기를 호출하고 명령할 때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아 온디바이스 AI로 구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I 명령어는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인

식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K-벤처·스타트업이 온디바이스 AI로 어떻게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을까? 먼저 슈프리마AI다. 슈프리마AI는 슈프리마 자회사로 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참고로 슈프리마는 2000년대 설립된 기업으로 지문과 얼굴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강소기업이다. 슈프리마AI는 슈프리마의 인증 기술을 활용해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CES 2025에서 'Q-비전 프로'를 출시해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Q-비전 프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온디바이스에서 분석해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금융 사기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 Q-비전 프로는 ATM 영상센서로 사용자의 표정 및 행동으로 보이콧 피해 여부를 감지할 수 있으며 감지에 따라 보안 관리자에게 바로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고스트패스는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외부에 저장하지 않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CES 2024 혁신상에 이어 CES 2025에서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기존 생체 정보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본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고스트패스는 온디바이스 방식을 적용했고 이를 통해 생체 정보를 외부 중앙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에 저장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얼굴 인증 시 인증 장치가 스마트폰과 통신해 인증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콤은 초소형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AirRay-Mini'로 2관왕을 휩쓸었다. 인간 보안(Human Security)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고 이미지 처리(Imaging)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했다. AirRay-Mini는 재난구호 현장 혹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게 하는데 안정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췄다. 우선

첨단 레이저 거리 센서를 탑재해 방사선이 일정 범위에서만 동작하도록 해서 방사선 위험을 최소화했다. AI 기반 노이즈 저감 기술을 통해 정확성까지 높였다.

드론 분야에서 활약한 국내 기업들

과거 드론은 군용으로 많이 활용됐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중 넓은 지대를 감찰하는 역할로 많이 쓰인다. 드론은 사람보다 빠르고 하늘에서 넓은 지대를 더 쉽게 감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라베이스는 이와 같은 드론의 강점을 활용해 스마트 시티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시에라베이스는 드론으로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안전진단 솔루션 시리우스(SIRIUS)를 선보였다. 시리우스는 AI 기반 손상탐지로 0.1mm의 균열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 비행이 쉽도록 하는 자율비행 및 자기위치추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니어스랩 또한 감찰 기능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니어스랩은 드론 자율주행 기술로 유명한 스타트업이다. 지난 CES 2022에서 자동으로 안전을 진단하는 기술을 선보여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CES 2025에서는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드론 스테이션은 드론이 자동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해 치안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CES 2025에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K-벤처·스타트업을 살펴봤다. 그 밖에 수많은 K-벤처·스타트업이 온디바이스 AI 및 드론 분야 외 자신만의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내년 CES 2026에서도 K-벤처·스타트업들이 본인만의 기술 강점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AX 시대, 中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인력관리-제조 등에 AI 선택적 도입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기업을 혁신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AX 시대가 활짝 열렸다.

AI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

중소기업은 치밀하고 빠르게 조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AI가 창조한
무궁한 가능성을 잡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3명의 전문가가 국내 중소기업이

AI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치열하게 의견을 나눴다.



박용선

조선비즈
벤처중기부 차장

정지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연구원



주병기 진행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좌담 내용은 좌장 및 패널의 개인 의견이며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의 고민 역시 커지고 있다. AI가 필수인 세상에서 중소기업은 기존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이기대 과거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 모델을 혁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AI를 공부해서 사업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과 AI 전문가가 컨설팅을 통해 업을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일반 기업이 단독으로 시도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업계 선두 주자들이 어떤 부문에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지 보면서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무난하다. 각 기업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당장에 AX 도입을 시도하기보다 자사에 적합한 AX 모델을 찾고 활용할 만한 AI 서비스가 구현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용선 중소기업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뿌리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800만 개가 넘고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이들이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양극화(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CEO들이 고령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AI를 적용하려고 계획한다고 해보자. 제조 설비에 어떻게 AI를 적용해야 할까. AI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있는 제조 시설로 완전히 바뀌야 하나?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기존 제조시설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비용 투자와 시간(교육)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모든 제조 시설에 AI

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 도입이다. 매출을 일으키는 80~90% 시설은 그대로 돌리고 나머지 10~20%에 AI를 적용한 시설을 새로 시범적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AI는 중소기업이 망할 수도, 반대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AI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기업은 도태할 것이고 변화를 추구하며 기회를 잡는 중소기업은 지속가능할 것이다.

정지오 현재 잘 영위하는 사업 모델을 혁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술 중심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 개량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인력 중심 회사의 경우

“**AX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 모델을 혁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업계 선두 주자들이 어떤 부문에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지 보면서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무난하다.**”



인력 배치나 갑작스러운 인력 변동 대응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관리 및 감독에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 당사에 첨단기술이 도입돼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즉 AI 기술 발전에 따라 혹은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에게 적합한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지금은 AI이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기술은 앞으로도 더 등장할 것이다.

AI 도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나?

이기대 AI는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와 기업 시스템의 혁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력 운영 관점에서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솔루션은 콜센터나 QA 검수 같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대체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자료 조사 같은 직종에도 많이 침식해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물류 등 시스템 생산성의 혁신도 가능할 것이다.

박용선 과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단순 제조를 기반으로 부품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성장(대기업에 의존했다면 AI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이 대대업을 능가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을 개발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한 개의 대기업에만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기업, 나아가 글로벌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 구조도 개선될 것이다.

AI 기술 도입 시 중소기업은 필연적으로 갖가지 걸림돌을 맞닥뜨릴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면.

“**AI 기술 발전에 따라 혹은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에게 적합한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지금은 AI이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기술은 앞으로도 더 등장할 것이다.**”



이기대 기존에 인력으로 해결하던 부분을 AI로 처리한다면 AI 도입 비용 대비 인건비 감소 폭이 더 크며 AX를 통한 생산성 증가폭 또한 상당해서 비용 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 기술 접근성 역시 글로벌 솔루션이 모두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많다는 점에서 대단한 진입장벽이 있진 않다. 다만 기업 내부에 AI 솔루션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대·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기업 단위에서도 역량 있

는 경력 단절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용선 현재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5%에 불과하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AI 활용 의향 실태조사를 보면 94.7%의 중소기업이 현재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AI 도입을 희망한다고 답한 기업도 전체의 16.3%로 높지 않았다. 왜일까. 중소기업이 AI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실태조사에서 ‘사업에 AI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80.7%로 가장 높았다. ‘회사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른다’가 14.9%, ‘AI 도입 및 유지 비용이 부담된다’가 4.4%로 각각 집계됐다. AI 기술을 도입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특성이자 한계다. 국내 중소기업은 그동안 해 온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한다. 트렌드에 맞춰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넣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소기업 CEO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정지오 개념적으로 AI가 자동화를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회사 내 보틀넥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나와 있는 많은 앱·웹 중에서 선택해 사용하거나 없으면 자체 제작할 것인지, 외주 처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에도 필요하고 업계에도 필요한데 제공되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없다면 정부 과제(정책)를 통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업계에 제공하는 구조를 시도할 수도 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기대 AI 인프라 분야는 미국과 중국의 자본 및 인재 경쟁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한국 기업은 AI 에이전트, 핀테크, 이커머스, 헬스케어,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중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다만 AI 서비스는 속도전의 속성이 있어 짧은 기간에 베타 버전 개발, PoC, 정식 서비스 출시 등의 과정을 진행하려면 기업의 모든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오히려 경직화돼 가는 추세라 안타깝다.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기대 AI로 인해 단순 업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개발 및 디자인 직군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도 AI 활용도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I를 통해 업무의 양과 질이 모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입사원 채용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존 근로자들이 업무에 AI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I 리터러시가 높은 신입사원을 채용해 조직의 AI 흡수 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인 기업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박용선 최근 만난 한 제조 분야 중소기업 CEO는 하드웨어 설계,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15명으로 운영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이 10배 증가했음에도 인력이 늘지 않은 이유는 AI가 경영 백오피스를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예산 산출 과정을 간소화했고 고객 서비스도 챗봇과 같은 AI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추가 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됐다고 말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뿌리다. 이들이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정지오 첨단기술이 적용되면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하므로 회사 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일부 인원은 단순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다. 각기 회사 내 사정이 다르고 상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력 재교육 시 본래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10년을 목표로 국내 중소기업이 세워야 할 공통 전략이 있다면.

이기대 국내외를 막론하고 AI는 향후 한 세기에 걸쳐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DX 바람이 크게 분 다음에 또다시 AX를 도입해야 한다

니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AX는 DX의 연장선이면서 훨씬 더 편하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좋은 AI 솔루션을 기업에 이식하고, 솔루션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직원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HR 혹은 기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장비는 사면 되고 기술도 라이선스를 빌릴 수 있으나 경쟁력 있는 직원은 조직 문화의 개선 없이는 만들 수 없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멈추 마치면 글로벌 시장 확장이 핵심이 될 것이다. AX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시장 분석, 마케팅, 유통, 물류, 현지화에도 충분히 AI를 활용할 역량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

박용선 분야별 중소기업이 원하는 AI 적용이 다르다. IT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이 관료화되고 혁신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대기업이라고 해도 모든 기술 개발을 혼자 할 수 없다. IT 분야는 현재 중소기업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산·학·연 각계 AI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AI 도입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정지오 급변하는 기술 환경이 당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기업의 생존력을 늘려갈 것인지 이미 고민하고 계실 거다. 옷은 매년 나온다. 예전 것도 있다. 현재 재정 여건에 따라 혹은 본인 의지에 따라 옷을 골라 입을 수도, 맞춰 입을 수도 있다.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함께할 좋은 귀인을 만나시길 바란다. 📺

산업용 밸브 제조기업 한국케이밸브(주)

세계 최초 버터플라이 밸브 개발,

전 세계 조선업 사로잡을 최고의 무기

2024년 4월 취임한 안성민 대표의
하루는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다.
중국 기업과의 미팅부터 중동
출장, R&D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
혁신까지. 게다가 현장 안전과 직원
복지도 놓치지 않는다. 새출발을
시작한 한국케이밸브(주)를 찾았다.

한국케이밸브(주) 안성민 대표

버터플라이 밸브는 우리가 넘버원

“유체가 새어도 된다면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방울이라도 새어선 안 된다면 반드시 우리 밸브를 써야 합니다.”

한국케이밸브(주) 안성민 대표는 단언한다. 제품에 대한 굳센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말이다. 밸브의 핵심은 실링이라고 불리는 누설 차단 기술. 실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구조물에 악영향을 끼쳐 심각한 산업피해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을 중시하는 화학 산업 분야에서는 으레 당연하듯 한국케이밸브(주)의 밸브를 사용한다.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품의 성능이 제일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한국케이밸브(주)는 두 가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하나는 미국에 본사를 둔 100년 역사의 글로벌 기술 솔루션 기업 에머슨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회사로 거듭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성민 대표의 취임이다. 2017년부터 에머슨의 사업부에 속해 있었으나 운영 방향에 차이가 있어 홀로서기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사명도 한국키스톤발부(유)에서 한국케이밸브(주)로 변경했다.

한국케이밸브(주)는 다양한 산업용 밸브를 제작 및 판매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밸브 전문 제조기업이다. 산업용 밸브는 크게 버터플라이 밸브, 볼 밸브, 글로브 밸브, 게이트 밸브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버터플라이 밸브를 전문으로 한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발전소, 조선소, 상하수도 시설 등 다양한 곳의 배관에 설치돼 유체의 흐름을 개방 또는 폐쇄하는 장치다. 현재 한국 밸브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조 원. 그중 한국케이밸브(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이며 버터플라이 밸브 분야의 경우 점유율이 30%에 달한다.

“흔히 경쟁사라고 지칭하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들입니다. 버터플라이 밸브를 세계 최초로 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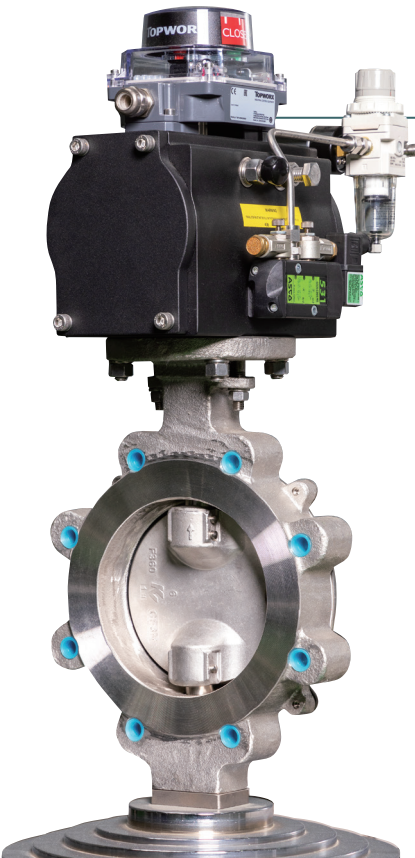


FigV30 Wafer Type
Eccentric BFV

화하여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한국케이밸브(주)의 전신인 키스톤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반도체처럼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타 업체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완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3배 정도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품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렇기에 고객사는 우리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기술력을 갖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한국케이밸브(주)의 시작은 1968년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의였다. 주로 부품 임가공 및 수출에 주력하던 시절이다. 그러다 1980년에 미국 키스톤인터내셔널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만 생산하던 고기능성 밸브(K-Lok)의 설계 및 제조, 운용 기술을 양도받았다. K-Lok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첨단 밸브로 국내에는 해당 기술력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케이밸브(주)가 고온·고압·화학 배관에 사용 가능한 밸브를 국내 시장에 빠르게 출시함으로써 한국의 화학·반도체·조선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선점할 수 있었다.

Fig362 Lug Type
Eccentric BFFV



‘기회의 땅’

미국·중국·중동 진출 본격화

1993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선박 수주 세계 1위에 올랐다. 국내 조선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공장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듬해 6월 한국케이밸브(주)는 경기도 안성시로 공장을 이전했다. 공장 대지만 6,000평(약 1만9,834㎡)에 이른다. 이처럼 한국케이밸브(주)는 반세기 넘게 한국의 핵심 산업들과 동반 성장했다. 국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밸브를 연이어 개발했다. 향후 반도체의 생명수라고 불리는 초순수의 제조 및 공급 시 사용되는 초순수용 밸브, 에너지 수송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초저온 밸브인 삼중편심 밸브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케이밸브(주)는 지난해부터 중국과 중동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힘써왔고 올해 설레는 첫발을 디딜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가령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밸브 회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이 700억 원 규모인데 그 양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중국 회사와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량의 셰일오일을 생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상황. 중동 국가들은 원유만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제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앞다퉈 건설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 플랜트에 한국케이밸브(주)의 밸브가 납품되고 있다. 이 사업이 더욱 확장된다면 장밋빛 미래는 따 놓은 당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것도 우리에게도 호재입니다.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는데 특히 군함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조하는 군함에는 70% 한국케이밸브(주)의 밸브를 사용합니다. 결코 경쟁자가 없습니다.”



66

품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렇기에 고객사는 우리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99



Fig1 Wafer Type
Concentric BFFV





이미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굴직한 조선사들은 미 해군 MRO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두 기업을 포함해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는 모두 한국케이밸브(주)의 오래된 고객들이다. 이처럼 한국케이밸브(주)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앞세워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을 책임지는 근속 연수 20년 베테랑들

“저는 13년간 독일 반도체 회사 및 벨기에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조업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후 에머슨에서 임원으로 2년간 일하다가 지난해 한국케이밸브(주)를 인수한 노희충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가 됐죠. 제가 대표직을 맡으며 임직원에게 강조한 것은 투명한 소통과 팀워크입니다. 정직한 의사소통만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해 회사 운영에 반영하고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성민 대표는 그간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한국케이밸브(주)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0년. 눈빛만 봐도 통하는 베테랑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품질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케이밸브(주)에서만 25년 근무한 생산팀의 전상태 이사는 “안성민 대표님이 취임하신 뒤로 파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 이전에는 품질 따로, 영업 따로, 재무 따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서로 융화가 잘된다.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일에 대한 열의가 다들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밸브(주)는 지난해 말부터 ‘품질·경쟁력·혁신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품질에 안주하지 않고 한 번 더 혁신을 통해 최고의 버터플라이 밸브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발을 맞추니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미래가 그리 멀지않았다. 🇰🇷



CES 2025서 세계가 주목한 창공 10대 기업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서 IBK창공 기업이 눈부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2개 기업이 '최고혁신상'에 선정됐고 8개 기업이 IBK창공관 전시회에 참여해 전 세계 참관객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참가 기업은 IBK창공 육성기업 900여 개 중에서 선발됐으며 CES 참가에 앞서 국내에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진행된 전략 세미나, IR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CES에서 IBK창공을 빛낸 우수한 기업들을 만나보자.

CES 2025 최고혁신상 수상 기업



(주)시에라베이스 로봇 지능, 안전관리 플랫폼

대표명 김승현

기업 소개 (주)시에라베이스는 지능로봇을 활용한 시설물 자율 안전관리 플랫폼을 개발·보급하는 기술 스타트업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리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안전관리 플랫폼 시리우스(SIRIUS)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시리우스는 3D 구조물 인지 및 점검 경로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 자율 점검이 가능한 로봇 솔루션이다. 기존 로봇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이 어려웠던 이유인 GPS 신호 수신 불가, 다양한 장애물, 복잡한 구조물 형태 인지 문제를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했다. 시리우스에 탑재된 회전형 라이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밀한 3D 환경을 생성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점검 경로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로봇은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회피하며 시설물의 손상을 자동으로 분석해 3D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기존의 점검 방식보다 안전하고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해진다.

(주)고스트패스 AI, 생체인증 솔루션

대표명 이선관

기업 소개 (주)고스트패스는 탈중앙화한 스마트 기기 원격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인증이 필요한 장치에서 원격으로 신원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분산형 생체인증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분산형 생체인증 솔루션은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생체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인증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원격 전송된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한다. 지문, 홍채, 안면, 정맥 등 대부분의 생체 정보를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분산형 인증 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IBK 창공관 전시 기업

(주)메디코스바이오텍 거미실크단백질 사업화



대표명 김순철

기업 소개 (주)메디코스바이오텍은 혁신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 기업이다. 거미실크단백질과 성장 인자 조합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사업과 암 진단 키트, 창상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 결합 및 R&D 협력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투자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거미실크단백질 활용 '스캐폴드(Scaffold)'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거미실크단백질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스캐폴드, 봉합사, 골재생제 등 다양한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키트를 통해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으며 암 특이적 인자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특이 염기서열을 확인하고 항체 제작을 완료해 신약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창상 치료제를 개발해 피부 재생을 돕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한다. 아울러 탈모 완화와 두피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해 두피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토틸 공정 자동화, 인공지능 모듈

대표명 이상형

기업 소개 (주)토틸은 공정 자동화를 위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사람의 작업을 이해하고 모방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산업용 인공지능 공정 자동화 기술을 제품화하고 사업화한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로봇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 자동화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주)토틸은 인공지능 공정 자동화 기술을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는 데 주력한다. 협동로봇, 부착형 인공지능 모듈, 컴팩트화한 인공지능 기반 로봇 자동화 셀을 통해 공정 자동화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EV 폐배터리의 진단, 검사, 해체 자동화 장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랜차이즈화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 토틸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적용 및 운영한 후 공급하며 기술력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공정 자동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에이아이파크

AI 음성/영상 생성 기술, 다국어 아바타 제작

대표명 박철민

기업 소개 (주)에이아이파크는 인공지능과 영상 기술을 융합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미디어 기업이다. 인공지능 음성·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바타를 구현한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AI 아바타 영상 제작 플랫폼 아이바타(AiVATAR)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아이바타(AiVATAR)는 AI 음성 및 영상 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에 혁신을 가져왔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초상권 걱정 없이 140개 국어를 구사하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으며 어떤 원고든 빠르고 쉽게 다국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사진 한 장과 3초의 음성만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AI 아바타를 쉽게 제작해 전속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품질 데이터와 유연한 표현력, 초상권 자유라는 장점이 있으며 제주도청, JTBC, 에스알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방송사에서 이미 아이바타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주)에스엘즈 콘테크(ConTech), 플랜트 건설

대표명 이유미, 정재현

기업 소개 (주)에스엘즈는 건설과 제조 분야에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융합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설계와 시공간의 격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구현한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AI 설계자동화 플랜트건설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소개

XR 증강휴먼 솔루션은 건설 현장에서 BIM(디지털모형) 데이터를 XR 장비를 통해 직관적으로 증강시켜 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한다. 이 솔루션은 BIM 데이터와 실제 건설 현장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다자간 협업과 소통을 지원하며 3D 기반으로 품질관리를 진행해 시간을 절감하고 공사 품질을 높인다. BIM2Content 자동화 과정을 통해 개발사나 사람의 관여 없이 BIM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고품질의 현장 시각화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라우팅 건설AI는 CAD 엔지니어링 기술로 MEP(기계, 전기, 배관) 설계를 자동화한다.

원더무브(주) 모빌리티 솔루션,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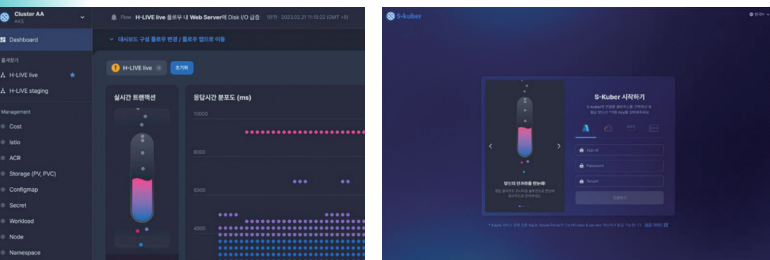
대표명 김태원

기업 소개 원더무브(주)는 현대자동차에서 분사한 IT 스타트업이다.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신 IT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모빌리티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S-Kuber)를 제공한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스쿠버(S-Kuber)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스쿠버(S-Kuber(Super-Kubernetes))는 기존 VM 클라우드를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지원하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위해 지능적으로 서버를 확장(Scale-up)하거나 축소(Scale-down)하며 대규모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잉클

제조 빅데이터, 플랫폼 기기



대표명 조운찬

기업 소개 (주)잉클은 설비 중심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 솔루션의 한계를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해결한다. 잉클에는 제조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IT 및 OT 엔지니어들이 함께하며 고객의 성장을 지원한다. 잉클은 산업용 데이터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산업용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Nzdata'

제품 및 서비스 소개

Nzdata는 잉클 빅데이터 플랫폼이 기본 탑재된 어플라이언스 기기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며 사전 구매 인터뷰 후 24시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OT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며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 OEE 및 SPC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와 데이터 분석 도구도 함께 제공해 더욱 편리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주)뷰전 PDLC 필름, 스마트 윈도우

대표명 윤희영

기업 소개 (주)뷰전은 PDLC 필름을 개발·생산한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투명도가 높은 Super Clear Normal PDLC Film과 Color Reverse Mode PDLC Film 생산에 주력한다. PDLC는 빠른 반응 속도와 필름 형태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스마트 윈도우 소재로 활용된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Color Reverse mode PDLC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주)뷰전의 PDLC 필름은 자외선 99.9%, 적외선 80.5%를 차단한다. 일반 창호에 부착하면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료를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내구성이 뛰어난 Super Clear Normal PDLC는 최대 90% 투과율을 구현한다. Color Reverse Mode PDLC는 전기장에 따라 투명·불투명 상태를 전환하고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먼지 없는 원터치 블라인드 기능으로 사생활 보호는 물론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 기술은 자동차 스마트 루프, 캠핑카 및 캐러밴 등에 적용돼 안락한 차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Reverse Mode

상시 투명화
원할 때 불투명 전환



Normal

상시 불투명
원할 때 투명 전환

나노일렉트로닉스(주) 나노 기술, 고전도 나노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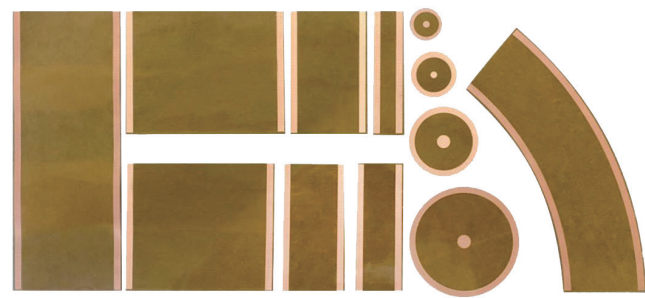
대표명 김영태

기업 소개 나노일렉트로닉스(주)는 '일상 속의 나노 기술'이라는 모토 아래 최첨단 나노 기술을 활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기업이다. 기술력 과시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왔다.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품 및 서비스 이름 나노면상 발열체, 3D 나노 히터

제품 및 서비스 소개

나노일렉트로닉스(주)는 전기 방사 방식으로 미세한 나노 실을 활용해 전기 전도성이 높은 구리 나노 섬유 필름과 고효율 전도성 발열체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열선 대비 3배 높은 발열 효율과 순간 발열이 가능하며 전력 효율은 최대 89% 향상됐다. 특히 기술을 적용한 초미세 구리선을 사용해 적은 비용으로도 빠르고 효율적인 히팅 필름 시스템을 구현했다. 나노 구리 화이버는 높은 히팅 에너지 밀도를 가지며 롤투를 방식의 연속 공정으로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저전압에서도 순간 발열이 가능해 화재의 위험성이 낮으며 손상 시에도 정상 작동하는 혁신적인 히팅 소재라 할 수 있다.



●LIVE

숏폼으로 '숏핑'해요

짧고 강렬한 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쇼핑의 중심에 섰다. 짧은 영상에 흥미로운 연출과 간결한 정보 전달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구매로 이어지는 새로운 쇼핑 문화, '숏핑(Short-pping)'이 떠오르고 있다. 숏핑은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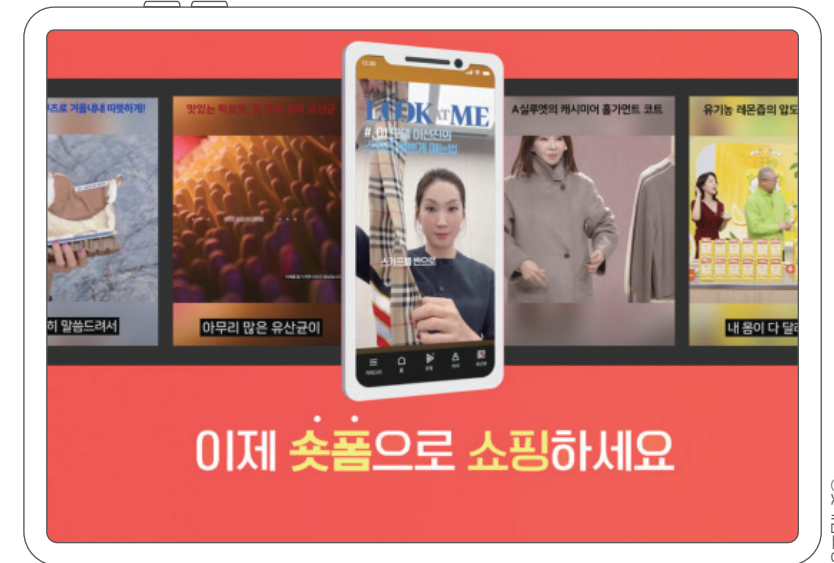
Profile. 이주희

-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책임연구원

숏폼의 대표 플랫폼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있다. 이 플랫폼들은 짧은 영상에 상품의 특징점을 담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숏핑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구매 가능성을 높인다. 숏핑을 활용한 커머스 활동은 챌린지를 통해 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과 짧은 광고 영상을 제작해 영상에 등장한 제품의 구매 링크를 함께 소개하는 방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인기 가요의 하이라이트에 안무를 만들어 챌린지 형태로 확산시킨 영상은 젊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예컨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춤 취야 꽃을 살 수 있는 꽃집'으로 잘 알려진 서울 성수동 꽃집 비틀즈뱅크는 화제성에 힘입어 서울 더현대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 총 1,500만 조회수를 달성한 댄스 챌린지 영상은 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댄서 제이블랙부터 박문치, 유병재 등 유명인은 물론 벨리곰, 돌리 등 캐릭터들이 꽃집을 찾아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며 확산됐다.

모든 플랫폼의 트렌드, 숏핑 ●

2022년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에 숏폼 도입을 시도했다. 10분 내외의 쇼핑 콘텐츠인 '맛보기 숏핑'을 선보였고 이는 1시간가량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예고 형식으로 짧게 보여줬다.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Q&A 형식으로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매 조건을 설명하는 것처럼 MZ세대의 짧은 동영상 선호에 맞춘 것이다. 네이버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인 판매 성과를 보였다. 팔도,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등 6개 브랜드가 참여한 뒤 매출이 증가했고 네이버는 '맛보기 숏핑'만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거나 본 방송 매출이 45% 증가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쇼핑 기능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커머스 사업에 진출했다. 특정 장면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띄우는 '타임스탬프'와 여러 동영상에 태그를 지정하는 '일괄 태그' 등 쇼핑 기능을 선보이며 사용자의 쇼핑 경험을 확대했다. 이러한 기능은 유튜브 파트너 자격을 충족한 크리에이터에 한정해 자사 물과 연동해 사용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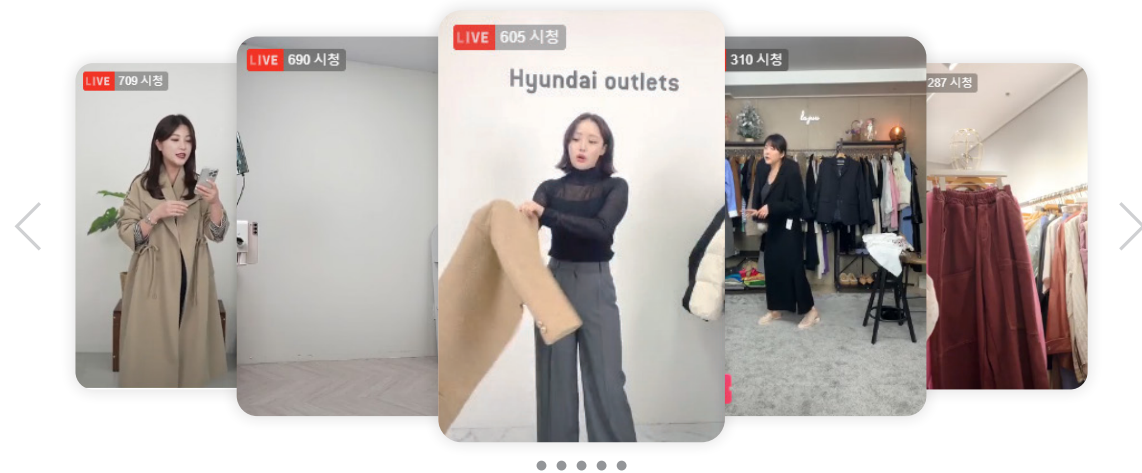
1월 21일 기준, 롯데홈쇼핑 숏핑 재생 수는 7개월 만에 300만 건을 넘어섰다.

수 있으며 쇼츠와 라이브 등 다양한 영상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틱톡은 미국 시장 내에서 커머스 서비스인 틱톡샵을 론칭했고 영국과 동남아시아 6개국에 이어 아홉 번째 진출 국가로 한국을 낙점했다. 틱톡은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16억 명이 넘는 만큼 화제성이 높은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다. 틱톡샵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 차례 퇴출당했으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해 다시 진출할 만큼 관련 서비스의 정착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매출로 증명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조사기업 유넷 EC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틱톡샵의 베트남 내 거래액은 18조3,600억 동(한화 약 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5% 증가했다. 이 밖에도 틱톡샵은 출시 3개월 만에 미국 내에서 약 15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탈(脫)TV 현상, 그 중심엔 숏폼

숏폼 콘텐츠가 이커머스에 끼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도 숏폼 중심으로 개편되며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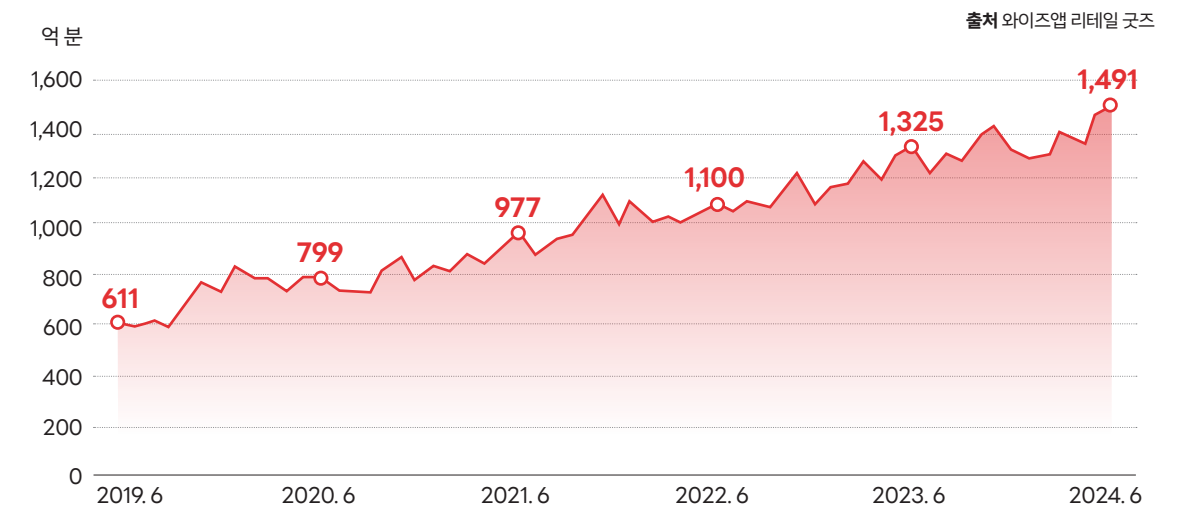
로잡고 있다. 상품의 특성을 짧고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숏폼은 브랜드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마케팅 도구로 자리 잡았다. ‘탈(脫)TV’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TV홈쇼핑 기업에서는 이를 대체하는 전략으로 숏폼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TV홈쇼핑 4사(GS샵,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송출 수수료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어 실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객 유입과 매출 개선을 위해 숏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GS샵은 지난해 12월부터 숏폼에 기반한 커머스 서비스인 ‘숏픽’을 운영하고 있다. 숏픽은 GS샵이 활용한 채널에서 송출됐던 상품 판매 영상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편집한 콘텐츠로 서비스 게시 이후 꾸준히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월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로봇청소기 ‘로보락S7 맥스 울트라’는 방송 주문 기준 약 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전체 주문 고객 중 약 15%가 방송 전 숏픽에 올라온 1분짜리 ‘로보락’ 영상을



네이버 쇼핑에서 숏폼을 도입한 첫해인 2022년에는 작년 대비 거래액이 1,254% 증가했다.

2019~2024년 숏폼 앱 월간 사용 시간 추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합산)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명의 구매자는 본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오직 숏픽 영상만 시청한 후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GS샵은 해당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내 비게이션 바 중앙에 배치할 정도로 핵심 서비스로 낙점해 힘을 싣고 있다.

이커머스의 핵심 요소, 숏폼

숏폼을 활용해 미래 고객을 모시기 위한 콘텐츠 마케팅도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패션 업계를 중심으로 숏폼의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가 다수 노출되며 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무신사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 ‘무신사 직원의 출근룩’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LF의 공식 채널인 ‘LF랑 놀자’에서는 ‘패션회사 직원들은 무슨 지갑 들고 다녀요?’와 ‘패션회사 직원들은 무슨 가방 들고 다녀요?’ 시리즈가 주목을 받았다. 두 시리즈 모두 실제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즉석에서 소개하는 콘텐츠로 친한 친구에게 설

명하는 듯한 연출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숏폼 플랫폼은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콘텐츠로 빠르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를 주도하는 MZ세대가 주로 사용한다.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용자의 시선을 잡아두는 전략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 업계에서는 ‘펀커머스(Fun Commerce)’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펀커머스는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꼼꼼하게 설명하는 일반적인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와는 달리 재치 있는 상황을 연출해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특히 지속적인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웃음을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숏폼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숏폼은 단순히 새로운 쇼핑 트렌드가 아닌 소비자가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쇼핑 경험이다. 앞으로도 숏폼은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하며 이커머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현명한 가업 승계 대책은?

사업체에 대한 상속세와 혜택에 관한 물음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까지 이르러 기업주에게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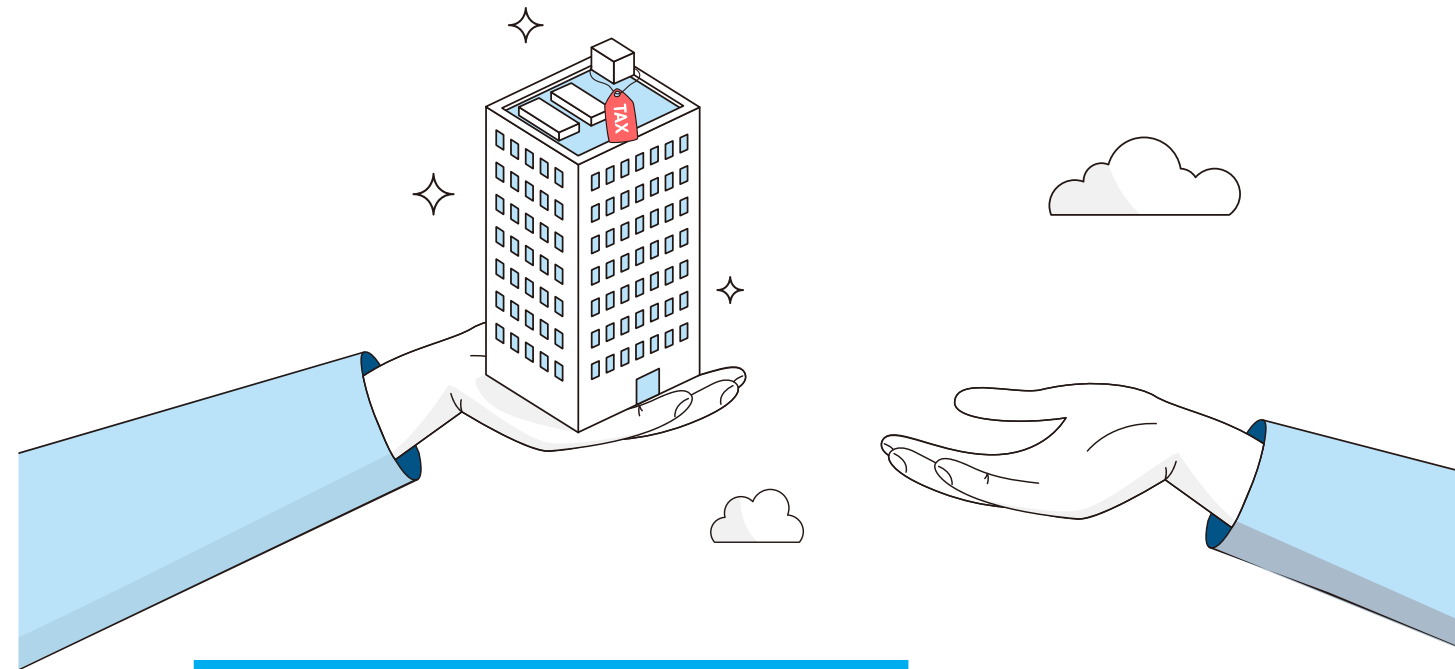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본 칼럼은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법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과중한 상속세 대비를 위한 가업 승계를 위한 현명한 대책

1 상속재산가액에는 개인 재산 외에 개인 기업주는 사업재산(부채는 차감) 등이, 법인 기업주는 주식평가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량한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면 사업 가치가 높게 책정돼 상속 재산가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상속공제는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600억 원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일괄공제: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 등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공제하는 것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생존하면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

이외에도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가업상속을 받으면 최대 300억~600억 원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 업종 요건: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하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업종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기업주)의 주식(지분) 보유 요건: 피상속인(특수관계인 주식 포함)이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며, 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할 것
- 자녀·상속인 배우자 등의 재직 요건: 상속 개시일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3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 10억~30억 원은 40%, 50억 원 초과 시는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어가면 50%가 적용된다.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30~40%)가 적용되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나 손녀가 상속·증여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1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를 예상해 본다.

기업주의 상속세는 현재 사업체 재산을 포함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인 손·자녀나 법인 등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재산가액을 파악한다. 이후 앞에서 본 상속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다.

2 상속세가 많이 예상되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운다.

- 개인 재산 중 현금성 자산을 배우자 등에게 미리 증여한다. 배우자 간은 10년간 6억 원, 성년자는 1인당 5000만 원 (혼인이나 출산 시는 1억 원 추가 공제), 미성년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이렇게 증여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가업 승계를 위해 법인의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저렴하게 부과(10억 원 공제, 증여세율 10~20% 적용)하나 이때 증여주식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무조건 포함되므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점검하고 실행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10~20년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까지 적용된다. 적용받기 위해선 앞의 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가업 승계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3 세제의 변화에 늘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는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매년 변동되는 세제에 관심을 기울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IBK기업은행-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 참가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 행장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
앞장선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다.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힘써온 이들에게 시상하고
축하를 전한 자리였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4년 12월 16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옴부즈
만과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
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
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
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올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
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 참가한 (왼쪽부터) 대팔이네 이대현 대표이사, (주)파인에코 김태윤 대표이사, 최승재 중소
기업 옴부즈만,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 (주)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이사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낮은 규제장벽'
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
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
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협력해 국가경
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
해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
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
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
행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지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오늘 수상자들
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
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며 “규제혁신
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옴부즈만
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참! 좋은 중
소기업상’ 부문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
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
만, 구본규 근정포장 수상자 등 표창 수상자들은
낮은 규제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규제 혁신에 대한 노력을 다짐했다. 



지금 세계는: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15% 보복 관세로 맞불

미국이 예고대로 2월 4일부터 중국 물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자 중국이 곧장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산 석탄, 갈탄, LNG 등 8가지 품목에 추가 관세 15%를, 미국산 원유, 농기계, 트랙터, 픽업 트럭 등 72개 품목에 10%를 부과하기로 한 것. 동시에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텅스텐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생산한다. 게다가 중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IT 기업인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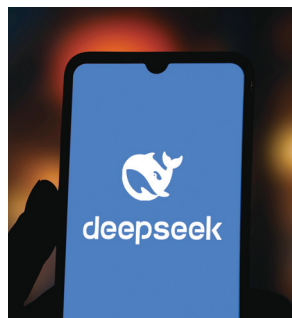


‘유럽 빅2’ 독일·프랑스, 충격의 역성장

2024년 4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0%를 기록했다. 유로존을 이끄는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의 마이너스 성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제조업 침체를 겪으며 성장률이 -0.2%에 그쳤다. 프랑스는 2023년 0.78%에서 더 하락한 -0.1%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조기 총선 이후 심각한 정치 분열을 겪으며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안보 위험에 딥시크 금지령 발동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쏟아 올린 공에 세계 각국은 경계 태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쳤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가 AI 인프라에 600억~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 한·미·일 AI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딥시크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안보 위험을 문제 삼아 이탈리아는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대만은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shutterstock



@shutterstock

‘관세전쟁’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다음은 E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 ‘관세전쟁’을 선포하며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2월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두 나라와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조건은 펜타닐의 미국 유통과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캐나다는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해 조직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에 1만 명의 군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가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통상 전쟁의 긴장은 풀리지 않고 있다.



6%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며 테슬라에도 제동이 걸렸다. 세계 1위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지난해 매출 976억9,000만 달러, 영업이익 70억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자동차 매출은 6%, 판매량은 1% 줄어든 수치로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저가형 신차 모델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1,082만 1,480대



@shutterstock

지난해 일본 도요타자동차그룹이 신차 1,082만1,480대를 판매하며 5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2023년 1,123만 대보다 3.7% 줄어든 수치다. 판매 감소에는 일본 내 품질인증 부정 사태로 인한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0.5%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우에다 가즈로 일본은행 총재는 “국제 금융자본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 경제와 물가가 전망한 대로 움직이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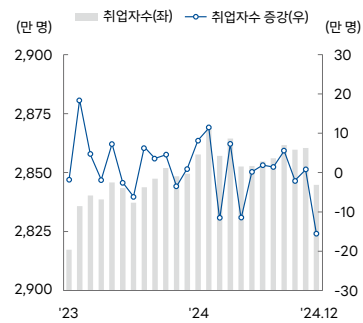
0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안에 제로(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 파마 교수는 1월 30일 팟캐스트 ‘캐피털리즘즈’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된 특성상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고정된 공급과 변동하는 수요가 결합하면 가격 변동성이 발생해 통화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10년 안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0으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1(100%)에 가깝다”고 답했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Korea

고용



주 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

최근 국내 경제는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 확대의 영향으로 경제심리도 위축되는 등 하방 리스크가 증대됐다. 생산과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생산(% , 전기대비): -0.3('24.Q2) → -0.4(Q3) → -0.3(10월) → -0.4(11)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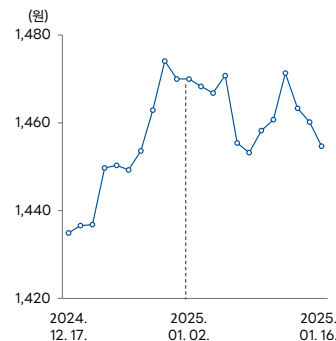
12월 수출 총액은 61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6%를 기록, 14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지속했다.

'24년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43.9%)와 컴퓨터(76.7%)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 수출(% , 전년 동월 대비): 71('24.9월) → 4.6(10) → 1.3(11) → 6.6(12)

Exchange Rate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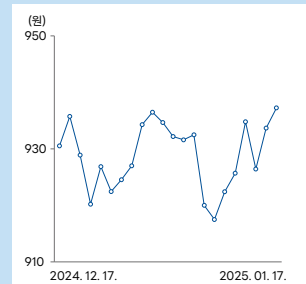
1월 환율은 1,450~1,480원에서 롤러코스터
(2025년 1월 2일 1,470원 → 1월 10일 1,458.2원 → 1월 17일 1,454.7원)

2025년 달러/원 환율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미국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축소되면서 1,470원에서 출발했다. 이어 트럼프 관세정책 약화에 대한 기대감과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 유입 가능성 등으로 1,45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10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며 1,470원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12월 PPI와 CPI 지표가 둔화하자 환율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어 발표된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2025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은 1,454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5년 1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454원으로 조사됐다. '1,48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4.12.18.~202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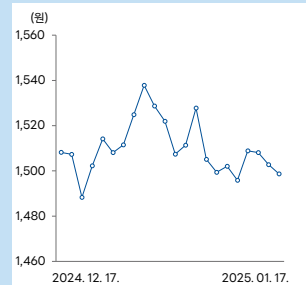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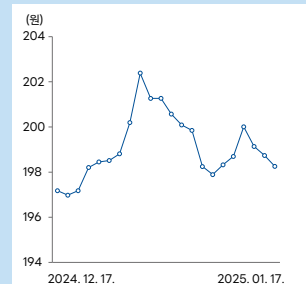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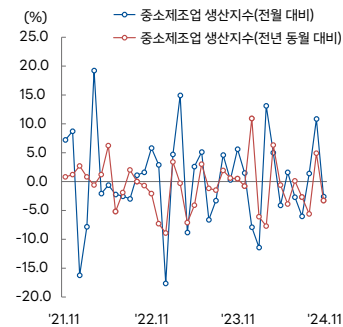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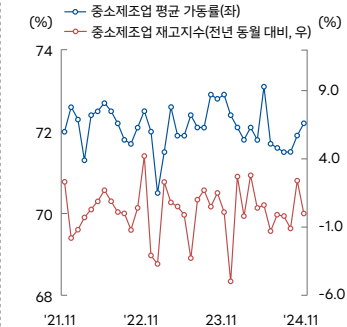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11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3.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3.9%), 석유정제(1.8%), 의복 및 모피(6.9%) 등에서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5.4%), 전자부품(-4.7%), 의료정밀광학(-6.7%)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11.1%), 기계·장비수리(50.9%), 의료정밀광학(9.6%)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6.7%), 전기장비(-13.2%), 전자부품(-10.2%)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11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증가해 72.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0.8%포인트 증가한 69.0%, 중기업(50~299인)은 0.4%포인트 감소한 75.7%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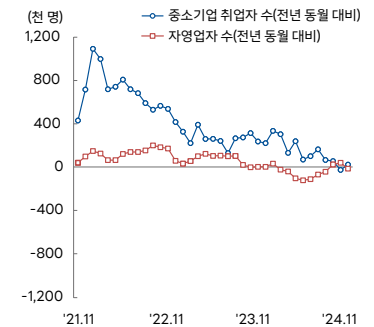
*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수준 유지

2024년 11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자동차(4.4%), 석유정제(5.3%), 화학제품(1.8%) 등에서 증가했으나 통신·방송장비(-28.2%), 반도체(-5.7%), 전기장비(-2.9%)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11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5,500명이 증가했으며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3만4,000명이 감소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4년 11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이 감소해 570만6,000명을 기록했다. 📉

직원의 무단결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25년째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한 직원의 일로 고민이 많아 노무사님께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5년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직원'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큼니다. 해당 직원은 1년 전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초기만 해도 굉장히 성실했는데 3개월 전부터 지각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소속 팀장이 잘 타이르며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지각은 습관이 됐고, 3일 전부터는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첫째 날, 무단결근의 사유를 물으며 "내일 출근해서 결근계를 내라"라고 지시했는데 다음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했을 때는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회사에도 미리 연락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병가를 내라고 하니, 아픈 사람을 귀찮게 한다며 '인권침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오늘도 출근하지 못한다"라는 연락만 받고 진단서 등 어떠한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1년 중 총 7일 무단결근 시 징계'라는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온 25년 동안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단어를 들으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New message

From 윤형석 노무사
Subject Re: 노무사님, 무단결근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근로자에 대해 인권침해라 볼 수 있는 사실관계는 찾을 수 없으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징계 사유입니다. 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결근 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법87누980,1989.3.14.)이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봅니다(대법2008두16094,2009.1.15.). 그럼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대법91다17931,1992.4.24.)입니다.

대법원은 전하나 구두로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해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라도 무단결근이 되며(대법86다카1875,1987.4.14.), 관리자에게 병가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사용자가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도록 권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대법2015두57673,2016.2.18.),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사후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대법97다6926,1997.4.25.)하며,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행위(근기1451-24180,1984.12.10.) 등에 대해 징계(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와 더불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무단결근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사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대법91다17931,1992.4.24.참조)에도 사용자의 명시적인 결근계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사전·사후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결근계 제출 지시가 있던 다음 날에도 무단결근을 한 점, 무단결근의 사유를 개인적인 질병으로 주장하나 정식 결근계 및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정식 업무처리 협조 요청에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 관계는 파탄됐다는 점, 이후에도 당해 근로자는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했고 사용자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인사위원회 구성 등)를 거쳐 징계수단·양정(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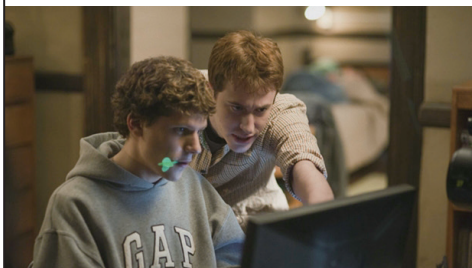
Forward

Cancel

글. 한명훈

영화 <소셜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이 효율성 높여도 미래를 여는 건 인간적 리더십



©CINE21

개봉 2010.11.18.
장르 드라마, 전기, 스릴러
감독 데이비드 핀처
출연 제시 아이젠버그, 앤드루 가필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아미 해머,
맥스 밋겔라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단지 페이스북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다. 디지털 문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기술은 연결을 돕지만 인간 중심의 문화 없이 그 연결은 의미를 잃는다. 리더십이란 코드로 세상을 설계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이다. 당신의 조직은 기술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Profile. 한명훈

- 아테네학당 대표
- <언택트 리더십 상영관> 등

“우리는 농장에서 살았고,
그다음에는 도시에서 살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살게 됐다.”

- 손 파커

2025년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사막이다. 기술은 마치 모래바람처럼 세상을 뒤덮으며 인간과 조직을 새로운 문명 속으로 이끈다. AI와 디지털 전환은 과거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막에는 방향을 잃은 이들이 속출하고, 불확실성의 바람은 결코 잦아들지 않는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바로 이 디지털 문명의 태동기를 그린다. 한 줄의 코드로 시작된 이야기는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연결하고 동시에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 기술이 문명을 창조하지만 그 문명 속에서 인간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영화는 기술 혁신이 인간의 삶과 조직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 코드 위에 세운 문명

‘소셜 네트워크’는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 기숙사 방에서 시작한 코드 한 줄이 어떻게 디지털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려낸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하지 않았다. 영화는 기술의 승리가 항상 인간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커버그는 하버드대 기숙사 방에서 첫 줄의 코드를 짜며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의 코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하는 동안 그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 영화는 그의 성공과 고립을 동시에 드러낸다. 기술은 강력한 무기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문명을 만들 수 없다. 조직과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코드와 함께 작동하는 인간의 관계와 신뢰다. 이 영화는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경고한다.

AI와 조직문화: 코드와 커뮤니케이션의 춤

AI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직의 본질은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바꾸는 인간의 협력에서 비롯된다. 기술은 정보를 연결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은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이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저커버그는 그의 천재적인 코딩 능력으로 세상을 연결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를 잃으면서 조직의 균형을 흔들었다. 그가 기술을 통해 이룬 성취는 인상적이지만 인간적인 신뢰를 놓치는 순간, 그의 리더십은 한계를 드러냈다. AI와 협력하는 오늘날의 리더는 효율성과 인간성이라는 두 축 사이

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효율성은 AI가 제공할 수 있지만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문화에서 나온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끄는 지금, 리더는 신뢰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의 리더십은 코드와 커뮤니케이션이 조화를 이루는 춤을 연상시킨다. 기술이 리듬을 제공한다면 인간은 그 위에서 창조적인 스텝을 밟아야 한다. 그 춤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조직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비전: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연결하고 있는 지금, 리더십은 기술 혁신 그 이상을 요구한다. 기술은 조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오롯이 리더의 비전과 통찰에 달려 있다. 기술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방향은 리더의 선택과 비전에서 비롯된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커버그는 그의 비전으로 세상을 연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기술적 성공을 거뒀지만 팀원들과의 관계는 균열을 일으켰고, 조직의 균형은 흔들렸다. 영화는 단순히 성공의 정점에 오른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성공의 이면에 존재하는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리더는 단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돼야 한다. AI와 데이터는 리더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지만 이 도구를 통해 무엇을 지을 것인지는 오롯이 리더의 몫이다. 기술은 설계의 재료일 뿐 그 재료를 다루는 방식은 인간적인 통찰과 비전에서 나온다. 📺

웰빙의 행복론...

쇼펜하우어의 건강법

‘잘 살기’를 지향하는 웰빙은 시대적 화두이자 철학적 주제다. 영어 ‘Well-being’은 한국어로 ‘잘 사는 것’을 뜻한다. 플라톤의 <대화 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리스 철학자에게 잘 사는 것은 무병장수만을 뜻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잘 사는 것은 ‘아름답게’ ‘옳게’ 사는 법을 포함한다.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면서 잘 사는 것은 마치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도 관심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 너무 넘쳐나다 보니 혼란스럽기도 하다. 건강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0%로 본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강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끊임없이 활동하라. 우리의 생명은 쉬지 않고 신진대사를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운동을 멈추면 안 된다.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도 활동을 멈추면 멎해지거나 따분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활동하는 것, 즉 무언가를 행하고, 가능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적어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둘째, 그렇지만 지나친 활동은 경계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육은 많이 쓸수록 강해지지만 신경은 그럴수록 약해진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육은 운동으로 적당히 긴장시키는 것이 좋지만 신경은 너무 긴장시키면 안 된다. 근육은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도 사고를 하는 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활동을 조정해야만 한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근육을 너무 많이 쓰거나 정신적 긴장을 많이 하면 뇌에 손상이 간다. 따라서 뇌가 피로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수면이란 시계의 태엽을 감아 주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깊은 잠을 통해 소진한 생명력을 다시 얻고 새롭게 태어난다. 인간처럼 뇌가 많이 발달해 뇌 사용이 많을수록 충분히 잠을 깊이 자야 한다. 그러나 시간만 늘린다고 좋은 수면이 아니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히 깊은 수면을 취해야만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 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건강을 해친다.

넷째, 돈을 벌기 위해 과로하면 안 된다. 과로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데 성공과 출세를 위해 잠자지 않고 밤이 새도록 일하면 정신력이 고갈된다. 모든 신체의 질병과 고통, 부조화가 발생하면 정신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재능을 지닌 천재도 젊을 때 혹사를 하면 나중에 정신력이 말라버려 말년에 우둔해지거나 정신박약까지 오고 정신이상자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몸과 정신을 혹사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이다. 따라서 돈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건강법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웰빙의 핵심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따르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좋지 않다. 너무 많은 정보는 건강에 대한 불안증을 키워 약에 대한 의존도만 높인다. 건강의 원칙은 단순할수록 지키기 쉽다. 

Profile. 강용수

-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 작품의 재구성> 등

@shutterstock

풍성한 명절 후, 뱃살이 걱정된다면

살찌는 건 걱정되지만 기름진 명절 음식과 끊이지 않는 간식은 포기할 수 없다. 평소보다 과식하기 쉬운 설 명절. 몇 개 먹은 것 같지 않은데 긴 연휴만큼 불어난 뱃살이 눈에 뵈는 것이다. '살찌는 명절'을 피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설 명절에는 쉽게 살이 쪼다. 갈비, 잡채, 전 등 풍족한 명절 음식에 손이 자주 가기 때문이다. 속이 더부룩해도 과일, 떡 등 간식도 먹는다. 소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평소보다 과식해서 소화제까지 먹게 된다. 명절 후 과식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뱃살과 체중을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먹을 때는 즐겁지만 먹고 난 후에 후회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된다. 따라서 명절 뱃살이 걱정된다면 명절 식습관, 신체 활동 습관을 살펴야 한다.

첫째, 단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을 챙겨 먹는다. 흰밥, 떡국, 백설기 등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쉽게 분해돼 혈당을 올린다. 이러한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다. 췌장의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액 속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과잉된 포도당은 복부 지방, 내장지방으로 축적되고 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악순환에 빠져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되기 쉽다. 그래서 채소, 콩류, 견과류 등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복합 탄수화물은 효소 작용을 통해 화학 결합을 분해해야 해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하루 7,000~8,000보를 걷자. 명절에는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등 신체 활동량이 평소보다 적다. 움직여야 칼로리 소모가 잘 일어난다. 식사 후 바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눕지 않고 가족들과 산책하며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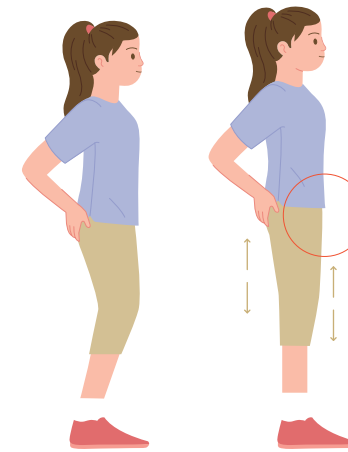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골반의 전방 경사를 줄인다. 과식하면 배가 나오며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전방 경사가 일어난다. 골반 전방 경사는 배가 더 나와 보일 뿐만 아니라 허리가 빠근해지고 통증으로 이어진다. 골반 전방 경사를 줄이기 위해 복근과 엉덩이 근육이 쓰일 수 있는 코어 운동을 틈틈이 해보자. 코어 운동은 몸통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뱃살을 줄인다. 심지어 허리통증 관리도 가능하다.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는 건 잠시지만 바뀐 몸과 뱃살은 오래 간다. 명절 중 식습관, 신체 활동 습관을 조금만 신경 써서 올해부터는 걱정을 덜어보자. 

Profile. 안병택

- 바디안 대표
-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매일통증> <4050 생활습관 리셋> 등

집, 회사에서도 쉽게 하는 뱃살 빼기 운동



앞쪽 고관절과 무릎이
일자로 퍼지도록
뚝바로 선다.

① 고관절 앞쪽 펴기

고관절 앞쪽을 펴서 골반을 중립하는 방법이다. 무릎과 고관절을 살짝 구부린 후에 양 손바닥을 허리에 놓는다. 앞쪽 고관절과 무릎이 일자로 퍼지도록 뚝바로 선다. 이때 복근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15회씩 2세트 반복한다.

② 네발 기기에서 무릎 들기

네발 기기에서 무릎을 들어 코어 앞쪽인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양 손바닥과 무릎을 어깨너비로 벌려 지면에 닿는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한다. 무릎을 지면에서 5cm 정도 떼낸다.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무릎을 내린 후 반복한다. 10회씩 2세트 반복한다.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무릎을 내린 후 반복한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왼쪽 팔을 몸통과
수직이 되도록 들어 올린다.

③ 버드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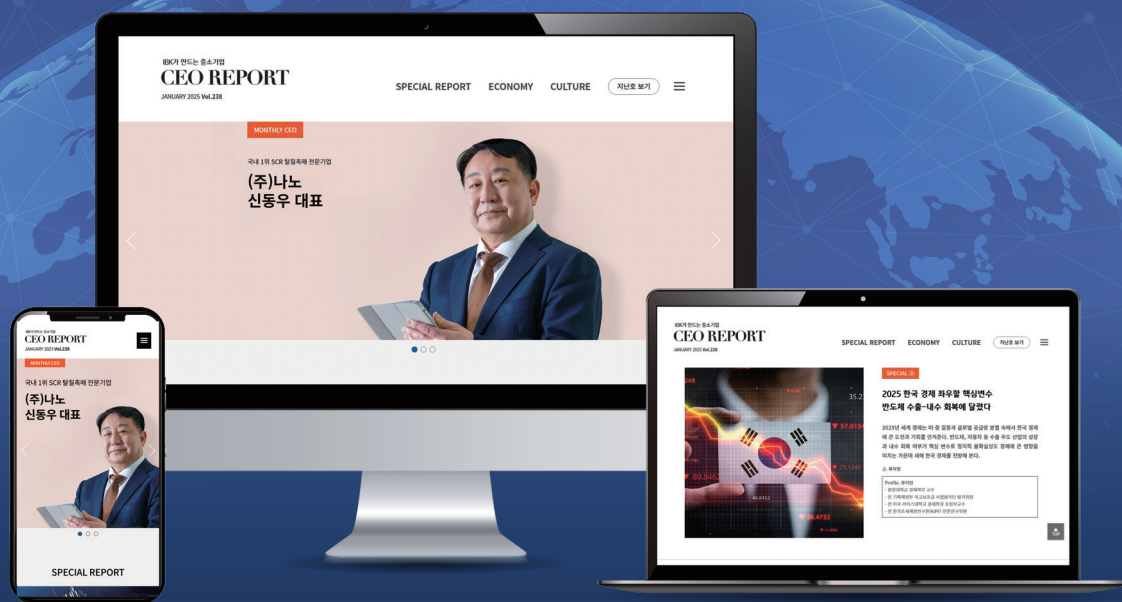
네발 기기 자세에서 팔, 다리를 반대로 들어 하는 코어 운동이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왼쪽 팔을 몸통과 수직이 되도록 들어 올린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균형을 유지한다. 몸통과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10회씩 2세트 반복한다.

‘CEO REPORT 웹진’이 오픈합니다

...

소식지 <CEO REPORT>를 온라인으로 만나 보세요!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CEO REPORT 웹진>이 오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CEO REPORT 웹진 접속하기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 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뜻대로 유연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뜻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은 거래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뜻대로 유연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참고바랍니다.